

고용률 높은데 구직단념자도 ‘최다’

6월 고용률 61.6%...1997년 이후 최고

실업률은 1999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

‘구직단념자’도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

정부 “고용 회복 흐름 지속” 긍정 평가

전문가 “제조업 나빠...좀 더 지켜봐야”

지난달 고용률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실업률도 높고 구직단념자 수도 많은 등 긍정적인 지표와 부정적인 지표가 혼재돼 나타났다. 혼란스러운 고용지표를 바라보는 정부와 전문가의 평가도 엇갈렸다.

통계청이 10일 내놓은 ‘2019년 6월 고용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고용률은 61.6%로 전년 동월 대비 0.2%포인트 상승했다. 1997년 6월 61.8%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생산 연령인구인 15~64세 고용률도 67.2%로 전년 동월보다 0.2%포인트 올랐다. 이 지표는 통계청이 관련 통계를 집계한 1989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연령대별 고용률을 살펴보면 60세 이상이 1.2%포인트 올라 전체 고용률 상승을 견인했다. 그중 65세 이상이 1.5%포인트, 50~64세가 0.4%포인트 상승했다. 30대 고용률은 0.5%포인트, 50대는 0.4%포인트 올랐다. 반면 ‘경제 허리’인 40대는 0.7%포인트 하락해 부진했고 청년층인 20대도 0.3%포인트 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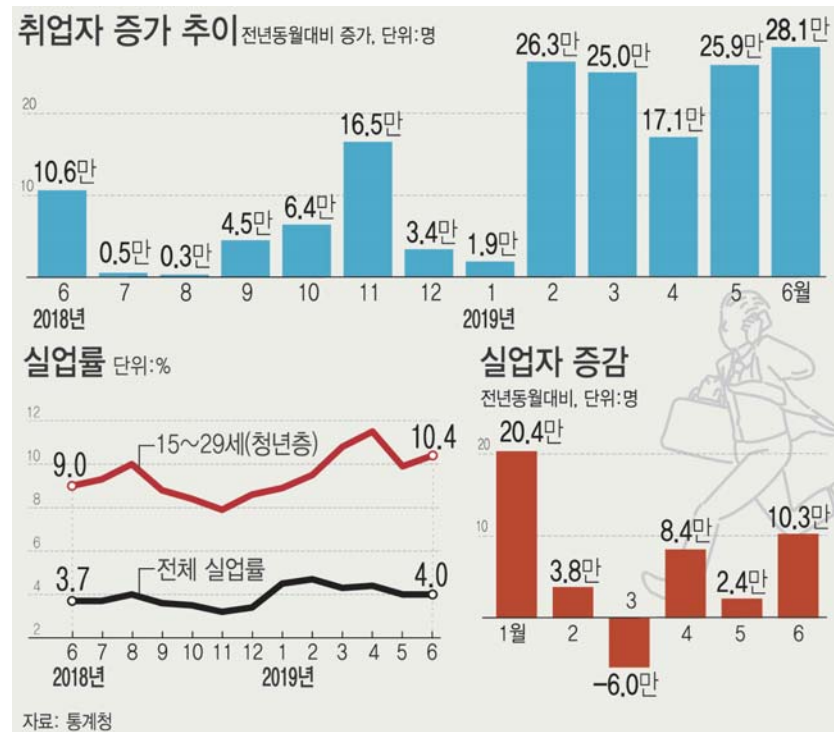
6월에는 고용률뿐만 아니라 실업률도 높았다. 지난달 전체 실업률은 전년 동월 대비 0.3%포인트 높은 4.0%다. 매년 6월과 비교했을 때 통계 작성법

을 현재와 같이 바꾼 1999년(6.7%)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실업자 수도 113만 7000명으로 10만 3000명(10.0%) 증가했다. 실업자 수는 1999년 6월 148만 9000명 이후 가장 많았다.

구직단념자 또한 전년 동월보다 3000명 늘어난 51만 4000명을 기록했다. 구직단념자란 ‘취업을 희망했으나 노동시장 여건 등을 이유로 일자리를 구하지 않은 사람 중 최근 1년 내 구직 경험이 있었던 자’를 말한다. 이 지표 역시 통계청이 현재 기준으로 집계 방식을 바꾼 2014년 이래 6월 기준 최대치 기록이다.

통계청은 이런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동욱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고용률이 상승하면서 실업률이 오르는 것은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일자리를 찾는 사람(경제활동인구)이 함께 증가하기 때문이다. 긍정적인 모습이라 아쉽다”고 말했다.

역대 최대인 구직단념자 수와 관련해서는 “구직단념자는 현재 구직을 위한 행동을 취하고 있지 않지만 언제든(노동시장으로) 나갈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이다. 이들이(일자리)를 찾으려 나가 경제활동인구에 합류하면 그 풀



(Pool)이 양질로 바뀌고 기업 입장에 서도 이들을 채용할 수 있는 여건이 좋아지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는 한층 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김영훈 기재부 정책기획과장은 6월 고용 동향 분석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4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고용률이 상승했다. 고용률이 2개월 연속 오르는 등 고용 회복 흐름이 지속하고 있다”면서 “이 흐름이 공고해지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런 지표를 두고 한국 경제 상황이나 노동시장 여건이 개선됐다고 보기는 아직 이르다고 짚었다.

김종욱 노동연구원 책임 연구원은 “고용률과 실업률이 동시에 오르는 현상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던 사람들이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것으로 최악의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비교 대상 시점인 작년 6월 노동시장 여건이 아주 안 좋았음을 고려해 기저 효과를 제외하고 보더라도 (좋은 일자리인) 제조업 상황은 여전히 나쁘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지난달 제조업 취업자 수는 441만 6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6만 6000명(-1.5%) 줄어들었다.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7만 5000명)에 이어 감소 폭이 두 번째로 컸다.

양준석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활동참가율이 오르는 것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품는 사람 수가 많아졌다고 볼 수 있어 긍정적”이라면서도 “고용률 상승을 청년층(20대)이나 30~40대가 아닌 60세 이상이 이끌었다는 점을 보면 당장 고용 회복 흐름세가 보인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불매운동? 일본행 항공권, 여전히 잘 팔려

티몬, 1~7일 예약 등 분석

상위 5개 지역 日 도시 2개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일제 불매운동이 펼쳐지고 있지만 여행업계에는 큰 타격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10일 티몬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지난주(1~7일) 항공권 예약과 패키지 상품 판매량을 토대로 지역별 여행 트렌드를 살폈다.

조사결과 항공권 예약 순위는 1위 다낭, 2위 오사카, 3위 방콕, 4위 괌, 5위 후쿠오카 등이다. 다만 지난

해 오사카와 후쿠오카가 각각 2, 3위에 랭크된 것과 비교하면 오사카는 여전히 2위를 유지했지만 후쿠오카는 5위로 밀렸다.

티몬 관계자는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조치때문에 일본 관련 상품의 불매운동이 확산되는 분위기지만 일본 여행 예약 건수는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큰 변화는 없었다”며 “다만 교통권, 와이파이 이용권 등 일본 현지 입장권 판매량은 10% 떨어져 소폭 하락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한편 티몬은 늦게서야 여름휴가 준비를 위해 오는 31일까지 리얼캠 머바캠스를 진행한다.



“치맥 파급력 있어” 치킨업계 생맥주 배달 합법화 반색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치킨·피자 등 음식과 함께 생맥주를 배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세법 기본통칙’ 개정안을 지난 9일부터 시행하면서 치킨 업계 등이 반색하고 있다. 아직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매출이 극적으로 올라갈 지는 알 수 없지만 주문당 매출 단가가 오를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도 나쁘지 않다는 반응이다.

치킨업계 관계자는 10일 “모두가 아는 것처럼 ‘치맥’이라는 단어 자체에 파급력이 있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치킨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매출을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라며 “본사가 가맹점주 모두에게 좋은 일”이라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미 일부 업체가 음성적으로 맥주 배달을 해왔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을 거라는 시각도 있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홍보 효과가 있어 매출 증대를 불러올 거라고 예상한다”고 했다.

서울 강동구에서 프랜차이즈 치킨집을 운영하는 한준석(38)씨는 “주류 매출 같은 경우 본사와 이익을 나눠 갖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기대가 크

다”며 “이제는 맥주 배달이 가능하다는 걸 전파 주문 고객에게 광고할 수 있으니 매출이 오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전까지는 식당이 음식과 함께 생맥주 등을 배달하는 건 불법이었다. 생맥주를 페트병 등 다른 용기에 담은 건 물리적 작용을 가해 당초 규격에 변화를 가져오는 가공 또는 조작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은 주세법 통칙 중 ‘주류의 가공 또는 조작 행위의 한계’ 조항이다. ‘소비자 요구에 따라 맥주를 분배기에서 즉시 추출해 빈 용기에 담은 행위는 가공·조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추가했다.

맥주업계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맥주업계 관계자는 “기준에 맥주 배달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이번 법개정으로 인해 생맥주 판매량이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생맥주배달이 전면 허용되지만 식당 마음대로 재포장해 판매할 수는 없다. 맥주를 담은 페트병에 상표를 붙이거나 소비자가 주문하기 전 생맥주를 미리 나눠 보관하다 적발되면 주류 가공·조작 행위에 해당돼 처벌받을 수 있다.

배달앱 시장 가열...배민·쿠팡·요기요 이전투구

배민-쿠팡 공정위 조정중...배민-요기요 법적 공방 갈수도

배달앱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업체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배달음식시장은 지난해 20조원을 넘어섰다. 이 가운데 배달앱 거래 규모는 2013년 3347억원에서 2018년 3조 4000억으로 10배 증가했다. 같은기간 배달앱 이용자수도 87만명에서 2500만명으로 늘어났다. 우리나라 인구의 50%가 배달앱을 사용하는 셈이다.

현재 배달의 민족(배민)과 배민브라더스를 운영하는 우아한 형제의 지난 해 매출액은 3193억원으로 전년 보다 두배 이상 뛰었다. 요기요와 배달통을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도 지난해 매출액이 1000억원을 돌파하며 30%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승승장구 중이다.

이같이 외형은 성장하고 있지만시장 진입 업체가 많아지면서 업체간 경쟁이 이전투구 양상으로 변질되고 있다.

배민과 쿠팡은 공정거래위원회를 끌어들여 전쟁을 치르는 중이다.

배민은 신규 진입 업체인 쿠팡을 공정위에 신고했고 요기요는 업계 1위 배민을 타깃으로 불공정 거래 혐의가 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배민은 온라인 시장의 강자인 쿠팡을 견제하기 위해, 요기요는 배민의 시장 주도에 브레이크를 걸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현재 쿠팡과 배민 간 다툼에 대해 조정해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배민은 앞서 지난 5월 17일 배민과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택을 제공

하겠다’는 쿠팡의 영업 행태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후 조정을 신청, 현재 공정거래 조정원으로 이관됐다.

기존 업체 간 싸움은 더 심각하다. 요기요는 배민이 ‘자영업자 매출관리 서비스(배민장부)’의 개인정보처리 방침을 변경하면서 음식점 점주들에게 요기요 사이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수집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맞서 배민도 불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배민은 9일 반박문을 내고 “배민장부는 자영업자를 위한 서비스”라면서 “매출액 정보는 요기요의 것이라기보다는 해당 음식점 업주의 것이며 부당한 방식으로 정보를 수집하지 않았고, 충분한 법적 검토를 마쳤다”고 반박했다.

광주, 대한민국! **미래로**

창의적이고 중요로운 광주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광주에 투자하십시오

친환경 자동차·에너지·문화산업 육성

에어가전 및 공기산업 클러스터 구축

AI 중심 산업융합 집적화 단지 조성

풍부한 우수인력 및 연구개발 적극 지원

GWANGJU